



포토 초콜릿 전문점 'Chocopose'

다양한 수제 초콜릿으로 압구정 공략

달콤 씹사름한 맛에 툭툭 튀는 외모를 갖춘 수제 초콜릿 전문점인 (주)초코포즈(대표 정현봉)가 지난 7월 압구정 1호점을 오픈했다. 이곳엔 한입에 쏙 들어갈 만한 작은 미니 초콜릿 수십점이 진열장 한가득 놓여있다. 35가지의 미니 초콜릿 제품이 이곳의 주력 아이템이다.

이밖에도 예쁜 장식물로 독특함을 더한 초콜릿 케이크와 고소한 초코 쿠키, 초코 머핀 등 초콜릿이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모두 모여 있다. 특히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을 원료로 만든 포토 초콜릿은 고객이 직접 선택한 이미지 사진을 초콜릿 겉 표면에 찍어주는 제품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초코포즈가 자체 제작한 기계에 체리, 라즈베리, 레몬 등의 천연 과즙을 이용한 식용 잉크를 장착해 이미지를 출력하면 포토 초콜릿이 완성된다. 지난 2000년 8월 연구개발팀을 발족해 2년여의 시행 착오의 시간 끝에 출시한 제품으로 초코포즈의 애착이 담긴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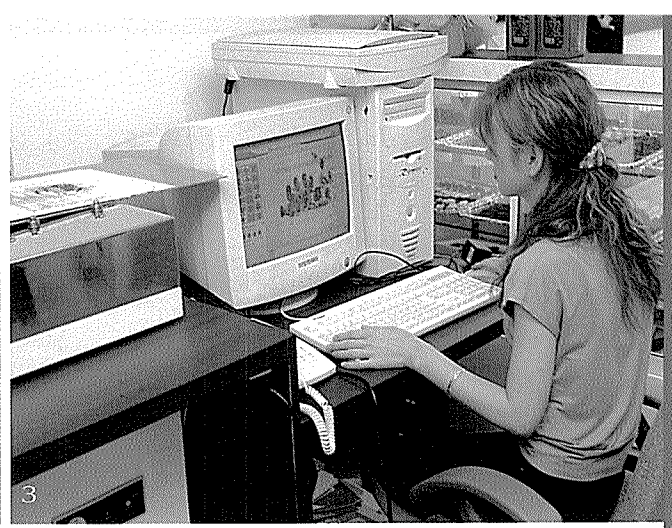
초코포즈는 숭안숍 형태로 입점해 있어 가게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지역 입지 특성에 맞게 일반 초콜

릿 제품과 내용물을 달리한 고급 제품이 준비해 있어 방문 고객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이 점포는 고급 초콜릿의 대중화를 모토로 초콜릿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는데 향후 포토 초콜릿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북 옥천에 공장을 보유한 이 회사는 케이크 등의 제품은 생산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보관 판매하고 있고 재고 물량은 바로 폐기처분한다. 변하지 않는 고급스런 초콜릿 특유의 맛을 위해 제품의 신선도 유지는 항상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초코포즈는 전한다.

(주)초코포즈 정현봉 사장은 "독특한 개성을 중요시하는 신세대에게 맞춤형 포토 초콜릿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선물 문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초콜릿 전문 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고급 초콜릿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초코포즈는 초콜릿을 이용한 음료 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초콜릿 전문점으로써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 임희정 lim@mbakery.co.kr〉



- ① 숨앤숨 형태의 독특한 구조의 투명 유리문 너머로 고객들의 시선이 초콜릿에 꽂힌다.
- ②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을 때' 초콜릿을 선물하세요~!
- ③ 디지털 사진을 찍고, 스캐너로 이미지를 완성하고, 식용 잉크로 출력하면 포토 초콜릿 완성.

Simple&Unigue

- ④ 게시판에 제품 소개란을 마련해 구매 고객에게 초코포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 ⑤ 나만을 위한 맞춤 선물 세트 '포토 초콜릿'.
- ⑥ 미니 무스 케이크는 초콜릿의 깊은 맛이 담긴 제품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일품이다.
- ⑦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른 초콜릿들이 한가득~. 한 개에 1,100원에 판매되고 있다.
- ⑧ 포토 초콜릿의 원료인 미국 ADM Cocoa사에서 수입한 화이트 초콜릿.

